

다문화 정책 손 놓았나

광주·전남 다문화 가정 증가하는데 관련 예산·공무원 교육 축소
지자체 정책 우선순위 낮아지고 관심도 떨어져 ... 대책 마련 시급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관련 예산과 공무원 교육 참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관심도 역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UN 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이민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공무원의 이민·다문화 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41억원에 관련 사업은 62개였다. 광주시의 다문화 정책 예산은 2014년 129억원에서 2016년 2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41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2014년 예산에 비해 3분의 1가량 축소된 것이다. 반면, 정책 과제는 2014년 44개에서 2016년 41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2개로 크게 늘었다. 정책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면서 내실있는 정책이 추진될 지 우려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다문화 70개 관련 사업

에 10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4년과 2016년에도 105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도의 다문화 관련 예산은 크게 늘거나 줄지 않았다. 정책 과제는 2014년 54개에서 2016년 49개로 줄어든 뒤 지난해 70개로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난해 서울시가 343억원을 배정해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고, 경기도도 지난해 231억원을 배정하는 등 매년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도 2014년 108억원에서 2016년 114억원, 지난해 183억원으로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민·다문화 정책 담당 공무원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모여 교육을 받는 집합 교육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 두 가지 모두 이뤄지고 있지만 전남은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은 과정수를 줄이거나 운영되지 않는 등 교육이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6년 67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지만, 다음해인 2017년에는 온라인 교

육 과정이 추가되면서 2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남은 2016년 교육인원(온라인 교육 포함)이 2373명이었지만, 다음해 온라인 교육 인원만 700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상 이민·다문화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 별로 1~3명에 불과해 교육 참여도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다문화 담당 직원도 사무관을 포함해 3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민·다문화 정책 관련 교육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집합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콘텐츠 개발, 감사 발굴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1162명으로, 광주시 인구(150만1557명) 대비 2.0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결혼 이민자와 국제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인구는 60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는 지난해 2017년 말 기준으로 1만1709명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포함하면 2만900여명이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축령산 편백숲에 치유여행 오세요”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된 2일, 장성 축령산 편백숲을 찾은 등산객들이 휴식을 하고 있다. 편백숲이 유명한 축령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숲 치유여행 관광단지 조성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새로 짓는다

시설 낡아 전시 연출 어렵고 관람객 불편 ... 용역 제안서 공고

세계적인 미술 축제 광주비엔날레의 새로운 전시관 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2일 광주시는 “지난 1995년 완공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현재 시설이 낡아 전시 연출에 어려움을 겪고, 관람객의 불편도 커 전시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비엔날레관 신축을 위해 최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서 공모를 내고 오는 19일까지 업체를 선정한다. 용역조사 결과는 올해 말 안에 납품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 문화브랜드로 예술행사 개최와 미래형 문화산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 전시문화관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초 광주시는 총 1200억원(국비 800

억원·지방비 300억원·민자 100억원)을 들여 부지 1만㎡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크고, 민자 유치도 힘들어 이번 용역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에 맞는 전시관의 규모와 건립 예산 등도 새로 짚는 계획이다.

특히 부지는 현재 비엔날레관이 자리잡은 중외공원 권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지만 용역업체가 적절한 입지 대상지 2곳 이상을 선정해 분석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광주시의 비엔날레 새 전시관 건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시민의 등이 다른 지역에서의 신축을 반대하고 현 위치나 중외공원 인근에 건립할 것을 주장했었다.

광주시는 전문가 자문과 주민공청회 등

을 거쳐 신축 부지를 확정하고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오는 2022년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에 대해서는 지역 예술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숙원사업이며, 적절한 예산과 부지 선정 등을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광주 투입 군부대
계엄군 '전사자' 표시 비석 버젓이 ▶6면



테이블 세트 최고의 조합을 찾아라
KIA 1·2번 타자 출루를 높이기 ▶20면

한전공대 설립 예타 면제 건의

김영록 지사, 이총리 만나
“공공형 이전 공청회 필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 정부 지원 사항을 건의했다. 2022년 3월 개교 일정에 맞춰 캠퍼스 조성, 설립 인가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적인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2일 도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전공대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준비중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2022년 3월 차질없는 개교를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한전공대 캠퍼스 조성 계획, 대학 운영 방안, 지역과의 연계 전략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이달 안에 최종 완성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했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투자 및 출자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남도는 한전공대 설립의 경우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영리 출연사업

이므로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총리와 만난 김 지사는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 설립의 효과가 22개 시·군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이라며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남도 전체의 의지가 집약돼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26일 한전공대 부지 선정 이후 김중갑 한전사장과 첫 비공식 만찬 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 총리를 만나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등 최근 한전공대와 관련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 제2청사인 동부청사 입지를 5월 말까지 선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한편 지지부진한 광주군 공청 이전 사업과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의 필요성을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어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센터

친환경양식 기술이전교육 지원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지원 친환경 양식업체 모니터링 지원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드립니다!!

- 하나**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 및 내수면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둘**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 셋** 귀여·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여·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넷**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다섯**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2017~2018년 2년간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원다리새우 양식 창업자
고0찬(충남 태안) 김0혁(인천 강화) 김0희(인천 옹진)
김0현(전북 익산) 박0웅(충남 부여) 배0준(충남 태안)
신0성(전남 무안) 이0형(경남 남해) 정0영(충남 태안)
천0주(전남 신안) 최0종(전남 영암) 최0욱(경남 사천)
추0선(경남 거제) 허0완(전남 신안)

큰징거미새우 양식 창업자
강0용(경남 산청) 권0도(경북 경산) 김0열(전남 강진)
김0우(경남 부산) 김0민(경남 하동) 김0일(전남 영암)
김0구(전남 화순) 김0주(경북 청송) 박0홍(경남 울산)
박0영(충남 금산) 박0영(경북 청송) 박0이(전남 나주)
심0우(전남 신안) 안0홍(전남 목포) 오0형(강원 홍천)
이0남(전북 고창) 허0지(경북 성주)

양식창업에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교육, 창업지원컨설팅, 모니터링 참가자 및 업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5~6월 모집공고, 7~8월 기술이전교육 진행 예정)

